

즐거웠던 여행의 기억, 남는 것은 사진
그리고 지역을 대표하는 특별한 기념품...



기업명 어거스트클라우드 대표 하선빈
연락처 010-5240-0212 이메일 augustlamb@naver.com
주 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총흔로 91,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1층 110호

여행을 아름답게 기억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을 만들다

어거스트클라우드

모든 여행이 그렇다. 기억은 흐려지고 추억은 자꾸만 멀어진다.

하지만 어거스트클라우드 하선빈 대표가 야심차게 준비한 '어거스트램'을 통해서라면,

즐거웠던 여행을 오래도록 추억할 수 있다.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기념품 스토어를 통해

특별한 관광 상품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Q.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과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상품을 제작해서 판매해 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하면서 시장 조사를 하던 중에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하게 됐어요. 관광기업만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희 사업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원했습니다.

Q. 사업을 통해 만들고 싶은 경남관광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관광기념품이란 어디서나 살 수 있고 어디서나 만들 수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상품이어

야 하고 그 지역에 와야지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여행 중에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품입니다. 그런 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제대로 담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어거스트램'이 되겠습니다.

Q. 경남관광을 이끌 대표주자로서 다짐이나 포부가 있다면?

어거스트램은 로컬스타일 플랫폼으로서 지역 업체, 지역 작가와 상생하며 함께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경남을 대표하며 나아가 대한민국 로컬 스타일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역에 기여하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며, 시장을 선도해나가는 관광기업이 되겠습니다.

여행을 가장 확실하게 기억하는 방법 바로 그 지역에서만 살 수 있는 기념품!

경남 관광기념품 시장에는 왜 ‘특별한’ 기념품이 없을까.

예로부터 경남은 산과 바다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고 있다. 하선빈 대표는 경남 마산 출신으로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경영했으며 소품샵에 제품을 납품하기도 했다.

이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가 새로운 시선으로 지역을 돌아보니, 이전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저희 부부가 여행을 좋아해서 경남의 여러 관광지로 여행을 다니곤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다른 지역 기념품 시장은 트렌드에 맞춰 발전하고 규모를 늘려가고 있는데, 경남은 왜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로컬스타일 플랫폼 ‘어거스트랩’ 오픈

어거스트클라우드 하선빈 대표는 게스트하우스와 기념품샵 납품 경험을 바탕으로 경남 관광기념품 시장을 바꿔보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경남에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그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산재해 있어, 관광 상품으로 만들기엔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어거스트클라우드는 오랜 고민 끝에 로컬스타일 플랫폼 ‘어거스트랩’을 오픈했다. 어거스트랩은 지역을 기반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과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로 관광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공간이다. 어거스트랩은 여행을 추억하고 여행했던 지역을 가장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는 크리에이티브한 제품들로 둘러싸인 공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열심히 공간을 채워나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과 지역 업체에서 만든 제품들까지 공간에서 함께 선보이면서 여행지의 모든 ‘로컬스타일’을 경험하고 추억할 수 있는 새로운 여행 브랜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경남 관광기념품 시장에 새 ‘바람’이 되기를

그동안 경남 관광기념품 시장은 정체되어 있었다. 지방이라는 이유로 언제나 수도권 문화의 받기만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경남이 관광산업에서만은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을 보태고 싶다.

“관광산업 선진지에서 많은 경험을 한 만큼,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서 경남을 넘어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기념품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관광 기념품 샵, 트렌드가 되다

국내 대표 여행지로 손꼽히고 있는 제주도에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비롯한 수많은 관광지가 산재해 있다. 그중에서도 최근 제주도에겐 150여 개의 개인 소품샵이 생겨나면서, 이곳이 여행자들의 필수 관광 코스로 거듭나고 있다. 이처럼 단순히 좋은 경치를 보고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아기자기한 소품들로 여행을 추억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여행객이 원하는 소품샵, 어거스트램

경남 여행 시장도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트클라우드스는 성장하는 여행 기념품 시장에 맞춰 주

객층인 2~30대 여행객을 대상으로 하는 감성 소품샵 ‘어거스트램’을 탄생시켰다. 젊은 여행객들이 원하는 아기자기한 굿즈를 판매하고 동시에 지역 기반의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함으로써 ‘경남다운’ 캐릭터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관광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어거스트램 공간 안에는 지역을 담는다. 지역을 대표하는 작가의 작품을 전시, 판매함으로써 지역 작가가 설 공간을 제공하며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역 작가의 창작 욕구를 고취시킬 수도 있다. 또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캐릭터로 만들면서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지역 생산 업체에서 만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지역민들에게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관광객과 지역민이 함께 행복한 여행을 만들어 가면서 관광시장의 선순환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기념품이 된 경남의 관광지

어거스트클라우드스는 현재 통영 동피랑 마을 인근에 1호 오프라인 매장 ‘어거스트램’을 오픈해 운영하고 있다. 통영의 여행 키워드인 꿀빵, 충무김밥, 누비, 나전칠기 등을 바탕으로 지역 작가들과 협업해 제품을 제작 중이다. 현재 통영에서 활동하는 작가와 계약을 점차 늘려나가는 중이며 수제막걸리와 맥주 등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 판매도 늘려나간다는 생각이다. 뿐만 아니라 지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다양한 캐릭터 만들기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도에 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녀, 동백, 한라봉 캐릭터 제품을 제작해 판매하고 있으며 통영 꿀빵, 멸치 등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다. 앞으로 지역 캐릭터

를 브랜드화해서 기념품으로 제작할 뿐 아니라 유튜브 애니메이션이나 인스타 등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확산해 나가면서 지역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지역과의 상생을 꿈꾸다

하선빈 대표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한번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만큼 고향 경남의 발전을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 이제 그는 고향에서 지역 작가와 함께 지역 캐릭터를 만들어 판매하면서, 혼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대표 주자가 되고자 한다. 그 첫걸음으로 경남관광기업지원센터 2021년 예비관광스타트업에 선정됐으니, 이제 지역과 손잡고 두박두박 걸어갈 일만 남았다.

“혼자가 아니라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어거스트클라우드스가 되겠습니다!”



10년 전에 다녀왔던 여행지...
그때 어디에 갔었더라, 가서 뭘 했더라
분명히 여행을 하긴 했는데 기억이 잘...

**관광기념품,
여행을 추억하다**